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에서 지난 16일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가 주관하고, 전주대 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군산대 문화사상연구소(소장 임규정)가 공동주최했다.

학술대회는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를 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전주대 원재연교수가 '대한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 - 인천 감옥과 전주 감옥을 중심으로', 서종태교수가 '구한말 천주교 신앙자유 의 법제화 과정 - 전북지역과 관련해', 이정욱교수가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 -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을 각각 발표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안 >



전주대학교가 지난 16일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가 주관하고, 전주대 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군산대 문화사상연구소(소장 임규정)가 공동주최했다.

학술대회에서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를 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전주대 원재연교수가 ‘대한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 - 인천 감옥과 전주 감옥을 중심으로’, 서종태교수가 ‘구한말 천주교 신앙자유 법제화 과정 - 전북지역과 관련’, 이정옥교수가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 -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을 각각 발표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 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전주대 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군산대 문화사상연구소(소장 임규정)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가 주관한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학술대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전주대 원재연 교수가 ‘대한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 - 인천 감옥과 전주 감옥을 중심으로’, 서종태 교수가 ‘구한말 천주교 신앙자유 의 법제화 과정 - 전북지역과 관련하여’, 이정옥 교수가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 -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전북도민일보>